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을 소개합니다! (버전 1.0)
“경의선 부지는 대자본의 막개발이 아닌
창의적인 주체들을 위한 공유지로 재생되어야 합니다.”

2016. 02. 19.

01.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가요?

■ 경의선 용산~가좌구간 8.5km가 지하화 된 후 지상부 공유지 절반 이상의 부지에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이 공유지의 공공가치를 사유화하는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권역에서 광범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생활환경 악화, 지역상권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다양한 시민들, 전문가들과 함께 경의선 공유지 전체의 공공적 가치를 회복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공간을 둘러싼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02. 경의선 부지 개발 과정에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 경의선 부지는 대규모 철도 유희지를 넘어 서울을 동서로 연결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생태축입니다. 경의선 부지는 공간에 대한 통합적 연계성, 도시재생 과정 전반에 걸친 생태문화적 가치,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과 다양성, 재생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협치(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경의선 부지 개발은 공덕역, 서강대역, 홍대입구역 등 주요 지역이 대규모 자본을 위한 개발지로 결정되어 막개발과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의선 공간 전체가 심각하게 단절되고 훼손될 위기에 처했으며, 지역 커뮤니티는 물론 상권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있어 시민과 전문가들의 개방적인 참여와 거버넌스는 배제된 채 대자본 주도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사업 추진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03.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대응 전략과 활동 방향은 무엇인가요?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①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통해 현재 경의선 개발 과정의 문제점 공론화(단절된 지역을 문화로 복원하는 경의선 공유지 활용계획 변경 요구, 지역주민의 삶과 합치될 수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 제시 등), ②경의선 공유지 활용, 개발 과정에 대한 사회적 거버넌스 및 시민이니시에이티브 구축(작은경제 및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과 공유의 대안 마련, 문화와 작은 경제가 융합한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 등), ③거점공간을 기반으로 자립을 위한 공유프로젝트(공덕역 늘장부지 및 여러 형태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대안프로젝트 실천, 공유지의 시민자산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시민 및 주민참여 확산, 자립실천프로젝트를 통해 상생공유를 위한 공유지 활용,개발의 대안을 제시)” 등을 통해 대응하고자 합니다.

04.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나요?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활동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는 자율적인 개인, 단체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개방적인 네트워크이자 공유 플랫폼입니다. 모든 결정은 월 1회 개최되는 전체 모임에서 진행되고, 일상적으로는 공동기획단 모임을 통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획단에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분야별 전문가, 지역 주체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5.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이 있나요?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은 기존의 늘장 부지를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베이스캠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참가자들은 자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행동의 계획을 직접 제안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프로그램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누구나 함께 기획하고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경의선 공유지 자립생활 프로젝트 <마션> : 상생공유의 공간을 우리들이 직접 설계하고 건축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
-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도시재생아카데미 : 젊은 연구자, 문화예술인 및 기획자, 지역활동가 등
- 경의선 공유지 시민답사 : 경의선 공유지의 도시재생
- 경의선 공유지 자립마켓
- 기타 제안 프로그램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준비모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노동당 서울시당, 늘장 협동조합 (마을기업연합회, 사람인 타로, 씬지 농부, 유알아트, 작당모의자, 합 협동조합, (주)자락당), 도시연대, 마포 녹색당, 맘상모, 모자란 협동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로놀이짱, 문화연대, 소셜 픽션넷, 생생협동조합, 슬로비, 오늘공작소, 일상예술창작센터, 자립음악생산조합, 정원사친구들, 제비다방, 종점수다방, 지금여기에, 청년예술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음악봉사단, 해방촌 사람들, 흥대앞에서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회적 예술가 협동조합, Oh!Record